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박나정\*, 임나영\*\*, 이창훈\*\*\*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바람직한 회복탄력성의 형성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문제로는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개인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개인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로 설정하여 구명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배경 현황 회복탄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검사도구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개인특성(3문항), 회복탄력성(27문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4문항)으로 총 5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국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9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한 775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이 3학년에 비해 회복탄력성의 긍정성 요소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미래계획효능감 요소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적응 및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하위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 52.1%의 설명력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회복탄력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특성화고등학교,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 충북공업고등학교

\*\* 교신저자: 임나영(dlask13@naver.com), 충남대학교, 042-821-7934

\*\*\* 교신저자: 이창훈(harmony@cnu.ac.kr), 충남대학교, 042-821-8579

# I. 서론

## 1. 문제 제기

최근 몇 년간의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청년실업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산업·경제 구조 변화, 경제 저성장 등에 의해 인력은 초과 공급되는 반면 기업에서 요구되는 인력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여 대규모의 청년실업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에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전문 기능기술인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특성화고등학교이다(윤지영, 2016). 특성화고등학교는 2009년 취업률이 16.7%까지 떨어지며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에 편중되는 상황을 맞이하였으나 정부의 여러 정책과 더불어 사회 인식의 변화로 2017년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취업률은 50.6%를 달성하게 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자신이 미래를 선택을 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구조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진로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에 맞는 양질의 전문 기능·기술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직업세계로 이끌기 위한 노력과 학생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복합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취업 지도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을 돕는 교육에 대하여 끊임없이 함께 고민해야한다.

선행연구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하여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였다이은정(2012)은 불안정한 진로의식과 미래에 대한 부담감은 청소년기의 방황과 갈등을 더욱 촉발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문새롬(2016)은 취업률 달성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취업 현장에 내보내면 취업 부적응에 의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한다고 하였다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양질의 기능·기술인으로 성장시키고 방황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신을 이해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안정된 진로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직업 세계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게 진로결정 및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파악은 중요한 문제이다즉,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미래에 만족스러운 직업 생활을 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특성을 이해한 다음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 영역에 적용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진로선택 진로 발달, 진로행동과 같은 진로결정의 과제나 행동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Taylor & Betz, 198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김수지, 이정자, 2013; 임나영, 2015; 문새롬, 2016; 황금진, 2017)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효과적인 진로 선택과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이를 높이는 요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요인들 중 도전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스트레스와 도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내고 실수고난, 역경으로부터 되돌아오는 능력을 말하며(Block, 2006),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해나가는 평정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인공지능, 자동화와 같은 기술발전과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로 인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졸업 직후 취업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비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지속적으로 필요한 요인인 것이다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마에탑(2016)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회복탄력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이은정(2012)은 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측정을 하고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교육의 정책방향과 진로교육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개인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수준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해본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개인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해본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해본다.

## 3. 용어의 정의

### 가.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시련 혹은 역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환경에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적응하는 성장 능력을 의미한다(김주환, 2009).

### 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과제들을 해결하고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을 의미한다(Taylor & Betz, 1983).

## 4. 연구 제한점

이 연구에서는 표본을 구성함에 있어 공업계열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 II. 이론적 배경

### 1. 회복탄력성

#### 가. 회복탄력성의 개념 및 선행연구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아동발달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자들은 역경에 직면한 사람들이 부정적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적응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역경과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회복탄력성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 현재는 사회과학, 기술과학, 철학, 예술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회복탄력성이 연구되고 있다(정은주, 2017).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최근 30년 안팎이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의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연구자별 회복탄력성에 대한 정의는 <표 1>과 같다. 연구자에 따라 회복탄력성에 대한 정의는 다른 점이 있으나 이를 종합해보면 회복탄력성은 어떠한 역경상황이나 시련에 적응하고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표 1> 국내·외 연구자별 회복탄력성 정의

연구자	정의
Wemer& Smith (1982)	위험상황이나 중대한 역경과 좋지 않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문제 상황에 잘 적응하고 회복하여 건강하게 발달하는 성장의 힘
Anthony (1987)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뛰어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Luthar (1991)	스트레스 혹은 어려운 처지 환경에 대한 정신적 면역력

연구자	정의
Reivich&shatte (2003)	인생의 시련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능력
이상준 (2002)	어떤 특수한 경우가 고려되며 특히 고 위험 상황 속에서 주변성 있게 외부의 힘을 견디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 능력
이해리·조한익 (2005)	내적 특질과 외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결정적으로 적응해 나가도록 돕는 과정적 능력
홍은숙 (2006)	삶의 역경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며 긍정적인 힘
김주환 (2009)	시련을 만나게 되었을 때 환경에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적응하는 성장 능력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Rutter(1989)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정은주(2017)는 회복탄력성은 개인적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주변 환경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주변 환경 문화, 교육, 개인의 의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 학교, 친구, 사회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회복탄력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회복탄력성이 진로를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나.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

회복탄력성의 구성 요소는 회복탄력성 측정 도구나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Kolhnen(1996)은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를 자신감 대인관계, 낙관적 태도, 정서조절, 효율성으로 제시하였고, Wagnild Young(1993)은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를 인내심, 독립심, 자기 신뢰, 평정심, 의지력으로 제시하였다.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은 회복탄력성을 단일 개념이 아닌 외부 요인까지 고려하여 여러 개의 하위 요소를 포함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회복탄력성을 크게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3가지 상위요소로 구성하였다 통제성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긍정성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역경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며, 사회성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의미한다 통제성의 하위요인으로 원인분석력, 감정 통제력, 충동통제력이 있고, 긍정성의 하위요인으로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성은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이 있으며 각 요소별 구체적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마예림, 2016).

<표 2>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통 제 성	원인분석력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능력
	감정통제력	위기 상황 속에서 감정을 잘 통제하는 능력
	충동통제력	목표달성을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상황을 제지하는 능력
긍 정 성	감사하기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생활만족도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
	낙관성	실패나 역경을 극복하고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사 회 성	관계성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타인에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
	공감능력	타인의 감정, 표정, 행동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능력

출처: 마에림(2016). 중고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사회적지지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pp 10-1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자들 간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구성요소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의미는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더욱 중요시되며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정은주, 2017). 또한 회복탄력성은 진로분야에 있어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전해 가며 생애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중요하게 주목해야할 변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 및 선행연구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과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가 갖는 신념이며, 즉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정의하였다(임나영, 2015).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떠한 일에 수행하거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자신감을 의미하며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과 도전적인 과제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함을 의미한다.

Hackett와 Betz(1981)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발달영역에 도입하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개념화하였다(박선희, 2013). 그들은 진로발달모형에 자기효능감을 주요한 변인으로 포함시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발전시켰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에서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이라는 과업을 시작하고 노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Lent & Hackette, 1987).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에 관한 의사결정, 탐색활동, 준비행동과 같은 부분에서 결정적인 예언력을 보인다

연구자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는 <표 3>과 같다. 연구자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는 다른 점이 있으나 이를 종합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 탐색과 진로결정 과정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표 3> 국내·외 연구자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의

연구자	정의
Bandura (1986)	자신이 진로와 관련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Lent & Hackette (1987)	개인이 진로결정이라는 과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이현주 (2000)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
김민순 (2004)	자신의 미래직업 세계에 대한 확신이나 결정에 관한 것으로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조명실 (2007)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신념
한수민 (2013)	주어진 과업이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손은령(2001)은 진로장애의 유형과 심각도에 따라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과정의 차이가 나타나고 진로장애 심각도와 진로결정이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또한 조경실, 최경숙(2007)은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 각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매개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과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장애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동제(2015)는 위기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과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회복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각각 매개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에 관한 의사결정 탐색활동, 준비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진로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또한 전문 기능·기술인으로 성장하여 사회로의 진출을 앞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살펴보고 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연구와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

Taylor와 Betz(1983)는 진로 전반에 걸친 자기효능감을 수량화하기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MSE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를 개발하였다(임나영, 2015). 이 척도는 일반적인 진로선택이나 결정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자기효능감 기대를 측정하도록 제작되었다. 이들은 <표 4>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5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표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정보수집	진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목표설정	진로에 관한 자신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정도
계획수립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정도
문제해결	목표 달성에 문제가 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의 정도
자기평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도

정보수집 요소는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에 대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목표설정 요소는 개인이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신감을 이야기하며 계획수립 요소는 진로를 결정하고 행동화함에 있어 필요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문제해결 요소는 개인이 진로 선택하고 수행함에 있어 부딪히는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자기평가 요소는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원하는 바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이 연구는 전국에 있는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132,087명, 2017년 2월 기준)을 모집단으로 하며, 적정 표본수는 375명이다. <표 5>와 같이 지역별 학교 수를 기준으로 비례유층 표집 방법으로 실시하되 회수율, 불성실 응답을 고려하는 비례지수를 2.5로 하였다. 2017년 3-4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99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한 설문지 중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한 75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5> 지역별 목표 표본수(17, 2월 기준)

지역별	학교수	비율	목표표본수	회수표본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87	36%	360	285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30	14%	120	79
전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40	14%	150	105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74	30%	300	239
강원권(춘천, 원주, 태백)	15	6%	60	47
합 계	246교	100%	990명	755명

## 2. 측정도구

이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개인특성(3문항), 회복탄력성(27문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4문항)으로 총 54문항을 사용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개인특성 측정문항은 임나영(2015)과 조명실(2007), 회복탄력성 측정은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은 임나영(2015)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문항내용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전문가 집단(15명)을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고 대전의 A학교 2학급을 대상으로 신뢰도 검증을 거쳐 구성하였다.

<표 6> 측정도구 문항 구성

측정도구	구성요소	문항	신뢰도	출처
1. 개인특성	학년	1		임나영(2015), 조명실(2007)
	적응 및 만족도	2		
	진로계획	3		
2. 회복탄력성	통제성	1-8, (9)	.846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긍정성	(10), 11, (12), 13-18	.832	
	낙관성	(19-21), 22-27	.896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정보	1, 2, 3, 7, 9, 10, 12, 17	.840	임나영(2015)
	목표선택	8, 16, 18, 19, 20	.701	
	미래계획	6, 14, 15, 23, 24	.714	
	문제해결	4, 5, 11, 13, 21, 22	.810	

## 3. 자료처리 및 분석

이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2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으며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의 개인특성과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의 개인특성과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개인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수준

#### 가. 학년에 따른 회복탄력성

학년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는<표 7>과 같다. 학년별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 긍정성에서 1학년과 3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5.241, p=.005$ ).

<표 7>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년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준

변인	학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통계성	1학년	309	3.75	0.53	1.110	.330	-
	2학년	232	3.78	0.54			
	3학년	214	3.70	0.56			
긍정성	1학년 <sup>①</sup>	309	3.86	0.56	5.241**	.005	①>③
	2학년 <sup>②</sup>	232	3.81	0.62			
	3학년 <sup>③</sup>	214	3.69	0.65			
사회성	1학년	309	3.80	0.57	0.192	.826	-
	2학년	232	3.83	0.60			
	3학년	214	3.81	0.60			

\*\*  $p<.01$

#### 나. 학교 적응 및 만족도에 따른 회복탄력성

학교 적응 및 만족도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표 8>과 같으며 학교에 잘 적응하고 만족하고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통계성( $F=15.819, p=.000$ ), 긍정성( $F=41.384, p=.000$ ), 사회성( $F=15.418, p=.000$ )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표 8> 학교 적응 및 만족도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준

변인	적응 및 만족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통계성	매우 잘 적응 및 만족 <sup>①</sup>	316	3.89	.55	15.819***	.000	①>②,③
	대체로 적응 및 만족 <sup>②</sup>	396	3.66	.48			
	적응 및 만족하지 못함 <sup>③</sup>	38	3.45	.67			
	전혀 적응 및 만족 못함 <sup>④</sup>	5	3.69	.83			

변인	적용 및 만족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긍정성	매우 잘 적용 및 만족 <sup>①</sup>	316	4.03	.57	41.384***	.000	①>②>③
	대체로 적용 및 만족 <sup>②</sup>	396	3.68	.54			
	적용 및 만족하지 못함 <sup>③</sup>	38	3.15	.66			
	전혀 적용 및 만족 못함 <sup>④</sup>	5	3.67	.90			
사회성	매우 잘 적용 및 만족 <sup>①</sup>	316	3.98	.59	15.418***	.000	①>②,③
	대체로 적용 및 만족 <sup>②</sup>	396	3.70	.55			
	적용 및 만족하지 못함 <sup>③</sup>	38	3.63	.61			
	전혀 적용 및 만족 못함 <sup>④</sup>	5	3.87	1.00			

\*\*\* p&lt;.001

#### 다. 졸업 후 진로계획에 따른 회복탄력성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표 9>와 같으며 통제성(F=3.376, p=.018), 긍정성(F=1.104, p=.347), 사회성(F=20155, p=.105)은 졸업 후 진로계획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9> 졸업 후 진로계획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준

변인	졸업 후 진로계획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통제성	취업	475	3.79	.55	3.376	.018	-
	대학진학	169	3.67	.51			
	기타	33	3.76	.53			
	미결정	78	3.63	.49			
긍정성	취업	475	3.83	.61	1.104	.347	-
	대학진학	169	3.75	.61			
	기타	33	3.70	.56			
	미결정	78	3.76	.55			
사회성	취업	475	3.84	.58	2.055	.105	-
	대학진학	169	3.79	.60			
	기타	33	3.68	.59			
	미결정	78	3.70	.56			

##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개인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

### 가.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는<표 10>과 같다. 학년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 미래계획효능감에서1학년과 3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157, p=.043).

<표 10>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

변인	학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직업정보 효능감	1학년	309	3.66	0.60	1.330	.265	-
	2학년	232	3.65	0.61			
	3학년	214	3.58	0.60			
목표선택 효능감	1학년	309	3.69	0.57	0.648	.524	-
	2학년	232	3.68	0.60			
	3학년	214	3.63	0.60			
미래계획 효능감	1학년 <sup>①</sup>	309	3.81	0.57	3.157*	.045	①>③
	2학년 <sup>②</sup>	232	3.78	0.59			
	3학년 <sup>③</sup>	214	3.68	0.60			
문제해결 효능감	1학년	309	3.72	0.58	0.050	.952	-
	2학년	232	3.73	0.58			
	3학년	214	3.72	0.60			

\* p<.05

#### 나. 학교 적응 및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교 적응 및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는<표 11>과 같다. 학교 적응 및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학교에 잘 적응하고 만족하고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직업정보효능감(F=22.561, p=.000), 목표선택효능감(F=15.333, p=.000), 미래계획효능감(F=19.067, p=.000), 문제해결효능감(F=24.817, p=.000)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적응 및 만족에서 '전혀 적응 및 만족 못함' 집단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평균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빈도수는 낮고 그 편차는 크기 때문에 사후분석의 결과가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다

<표 11> 학교 적응 및 만족도에 따른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

변인	적응 및 만족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직업 정보 효능감	매우 잘 적응 및 만족 <sup>①</sup>	316	3.84	.60	22.561***	.000	①>②,③
	대체로 적응 및 만족 <sup>②</sup>	396	3.50	.54			
	적응 및 만족하지 못함 <sup>③</sup>	38	3.36	.77			
	전혀 적응 및 만족 못함 <sup>④</sup>	5	3.60	.71			
목표 선택 효능감	매우 잘 적응 및 만족 <sup>①</sup>	316	3.83	.58	15.333***	.000	①>②,③
	대체로 적응 및 만족 <sup>②</sup>	396	3.57	.55			
	적응 및 만족하지 못함 <sup>③</sup>	38	3.36	.72			
	전혀 적응 및 만족 못함 <sup>④</sup>	5	3.72	.92			

변인	적응 및 만족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미래 계획 효능감	매우 잘 적응 및 만족 <sup>①</sup>	316	3.95	.58	19.067***	.000	①>②,③
	대체로 적응 및 만족 <sup>②</sup>	396	3.64	.53			
	적응 및 만족하지 못함 <sup>③</sup>	38	3.55	.72			
	전혀 적응 및 만족 못함 <sup>④</sup>	5	3.64	.77			
문제 해결 효능감	매우 잘 적응 및 만족 <sup>①</sup>	316	3.92	.58	24.817***	.000	①>②,③
	대체로 적응 및 만족 <sup>②</sup>	396	3.58	.53			
	적응 및 만족하지 못함 <sup>③</sup>	38	3.46	.66			
	전혀 적응 및 만족 못함 <sup>④</sup>	5	3.67	.72			

\*\*\*  $p < .001$ 

#### 다. 졸업 후 진로계획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으며 졸업 후에 기타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직업정보효능감( $F=8.634$ ,  $p=.000$ ), 목표선택효능감( $F=3.223$ ,  $p=.022$ ), 미래계획효능감( $F=4.001$ ,  $p=.008$ ), 문제해결효능감( $F=7.510$ ,  $p=.000$ )이 높게 나타났다.

<표 12> 졸업 후 진로계획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

변인	졸업 후 진로계획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직업정보 효능감	취업 <sup>①</sup>	475	3.64	0.61	8.634***	.000	①,②,③>④
	대학진학 <sup>②</sup>	169	3.67	0.56			
	기타 <sup>③</sup>	33	3.97	0.60			
	미결정 <sup>④</sup>	78	3.38	0.56			
목표선택 효능감	취업 <sup>①</sup>	475	3.67	0.59	3.223**	.022	③>④
	대학진학 <sup>②</sup>	169	3.70	0.60			
	기타 <sup>③</sup>	33	3.85	0.61			
	미결정 <sup>④</sup>	78	3.51	0.56			
미래계획 효능감	취업 <sup>①</sup>	475	3.77	0.59	4.001**	.008	③>④
	대학진학 <sup>②</sup>	169	3.76	0.57			
	기타 <sup>③</sup>	33	4.01	0.63			
	미결정 <sup>④</sup>	78	3.61	0.54			
문제해결 효능감	취업 <sup>①</sup>	475	3.73	0.59	7.510***	.000	①,③>④
	대학진학 <sup>②</sup>	169	3.73	0.55			
	기타 <sup>③</sup>	33	4.03	0.62			
	미결정 <sup>④</sup>	78	3.49	0.52			

\*\*  $p < .01$  \*\*\*  $p < .001$

### 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 가.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수준별 집단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결과는<표 13>과 같다. 직업정보효능감의 평균은 상위 집단이 4.12, 중위 집단이 3.55, 하위 집단이 3.24, 목표선택효능감은 상위 집단이 4.08, 중위 집단이 3.60, 하위 집단이 3.33, 미래계획효능감은 상위 집단이 4.22, 중위 집단이 3.67, 하위 집단이 3.41, 문제해결효능감은 상위 집단 4.20, 중위 집단이 3.65, 하위 집단이 3.32로 상위, 중위, 하위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상위, 중위, 하위 집단 순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3>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

변인	집단	인원 (명)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직업정보 효능감	상 <sup>①</sup>	234	4.12	0.54	184.909***	.000	①>②>③
	중 <sup>②</sup>	297	3.55	0.46			
	하 <sup>③</sup>	224	3.24	0.48			
목표선택 효능감	상 <sup>①</sup>	234	4.08	0.55	132.097***	.000	①>②>③
	중 <sup>②</sup>	297	3.60	0.49			
	하 <sup>③</sup>	224	3.33	0.48			
미래계획 효능감	상 <sup>①</sup>	234	4.22	0.53	166.650***	.000	①>②>③
	중 <sup>②</sup>	297	3.67	0.45			
	하 <sup>③</sup>	224	3.41	0.49			
문제해결 효능감	상 <sup>①</sup>	234	4.20	0.49	206.818***	.000	①>②>③
	중 <sup>②</sup>	297	3.65	0.46			
	하 <sup>③</sup>	224	3.32	0.46			

\*\*\*  $p < .001$

#### 나.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표 14>와 같다.

직업정보효능감은 통제성( $r=.648$ ), 긍정성( $r=.508$ ), 사회성( $.504$ )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선택효능감은 통제성( $r=.583$ )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긍정성( $r=.467$ ), 사회성( $.433$ )과 중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계획효능감은 통제성( $r=.610$ ), 긍정성( $r=.514$ )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사회성( $r=.474$ )과 중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효능감은 통제성( $r=.666$ ), 긍정성( $r=.522$ ), 사회성(.526)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변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	직업정보 효능감	목표 선택 효능감	미래 계획 효능감	문제 해결 효능감
회복탄력성	통제성	1						
	긍정성	.601**	1					
	사회성	.576**	.539*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직업정보효능감	.648**	.508**	.504**	1			
	목표선택효능감	.583**	.467**	.433**	.740**	1		
	미래계획효능감	.610**	.514**	.474**	.758**	.734**	1	
	문제해결효능감	.666**	.522**	.526**	.837**	.766**	.763**	1

\*\*  $p<.01$  \*\*\*  $p<0.001$

#### 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설명력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각각 14.644(통제성), 5.140(긍정성), 4.759(사회성)로 유의 수준 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 값이  $p=.000$ 에서 282.108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521$ 로 52.1%의 설명력을 보인다.

회복탄력성이 직업정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각각 13.084(통제성), 3.925(긍정성), 4.530(사회성)로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 값이  $p=.000$ 에서 210.456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457$ 로 45.7%의 설명력을 보인다.

회복탄력성이 목표선택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각각 11.053(통제성), 3.974(긍정성), 2.742(사회성)로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 값이  $p=.000$ 에서 145.174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367$ 으로 36.7%의 설명력을 보인다.

회복탄력성이 미래계획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각각 11.196(통제성), 5.239(긍정성), 3.598(사회성)로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 값이  $p=.000$ 에서 178.577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416$ 으로 41.6%의 설명력을 보인다.

회복탄력성이 문제해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t$ 값이 13.690(통제성), 4.011(긍정성), 5.148(사회성)로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 값이  $p=.000$ 에서 235.688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485$ 로 48.5%의 설명력을 보인다.

<표 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beta$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전체	상수	.106		6.961	.000	
	통제성	.034	.499	14.644	.000	.549
	긍정성	.029	.170	5.140	.000	.583
	사회성	.030	.154	4.759	.000	.610
	R=.722, $R^2$ =.521, 수정된 $R^2$ =.519, F=282.108, p=.000					
직업정보 효능감	상수	.127		4.104	.000	
	통제성	.040	.475	13.084	.000	.549
	긍정성	.035	.138	3.925	.000	.583
	사회성	.035	.156	4.530	.000	.610
	R=.676, $R^2$ =.457, 수정된 $R^2$ =.455, F=210.456, p=.000					
목표선택 효능감	상수	.134		7.155	.000	
	통제성	.043	.433	11.053	.000	.549
	긍정성	.037	.151	3.974	.000	.583
	사회성	.037	.102	2.742	.000	.610
	R=.606, $R^2$ =.367, 수정된 $R^2$ =.365, F=145.174, p=.000					
미래계획 효능감	상수	.128		6.803	.000	
	통제성	.041	.421	11.196	.000	.549
	긍정성	.035	.191	5.239	.000	.583
	사회성	.036	.128	3.598	.000	.610
	R=.675, $R^2$ =.416, 수정된 $R^2$ =.414, F=178.577, p=.000					
문제해결 효능감	상수	.120		5.047	.000	
	통제성	.038	.484	13.690	.000	.549
	긍정성	.033	.138	4.011	.000	.583
	사회성	.033	.173	5.148	.000	.610
	R=.696, $R^2$ =.485, 수정된 $R^2$ =.483, F=235.688, p=.000					

## V. 결론 및 제언

###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회복탄력성의 성장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년에 따른 회복탄력성 전체 수준은 1학년이 3.80, 2학년이 3.81, 3학년이 3.73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 회복탄력성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회복탄력성의 하위 변인 중 긍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 적응 및 만족도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회복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학교에 매

우 잘 적응 및 만족하고 있는 집단이 대체로 적응 및 만족하는 집단과 대체로 적응 및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회복탄력성의 모든 하위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수준은 1학년이 3.72, 2학년이 3.71, 3학년이 3.65로 나타났으며, 하위 변인 중 미래계획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 적응 및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학교에 매우 잘 적응 및 만족하고 있는 집단이 대체로 적응 및 만족하는 집단과 대체로 적응 및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졸업 후 진로계획이 기타인 집단이 높은 수준으로 측정 되었고, 졸업 후 진로계획이 미결정인 집단이 낮은 수준으로 측정 되었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복탄력성 수준(상·중·하)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 변인에서 상위 중위, 하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회복탄력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직업정보효능감은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선택효능감은 통제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긍정성 사회성과 중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계획효능감은 통제성, 긍정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성과 중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효능감은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52.1%의 설명력을 보이며 회복탄력성이 직업정보효능감에 45.7%, 목표선택효능감에 36.7%, 미래계획효능감에 41.6%, 문제해결효능감에 48.5%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결론

이 연구에서 주목한 연구 문제와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먼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개인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준은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긍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성에서 3학년이 1학년 보다 그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회복탄력성 수준이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양형모 2016)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직업 세계로의 진출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의 심리적 영향에 의한 것이라 해석되며 학생이 삶에 대한 만족감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높이고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학교 적응 및 만족도에 따른 회복탄력성 수준은 학교에 매우 잘 적응 및 만족하는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만족도가 회복탄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회복탄력성의 성장을 돕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개인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은 하위 변인 중 미래계획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미래계획효능감의 경우 3학년이 1학년 보다 그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에 따른 미래계획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학년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체로 3학년에게서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임나영 2015)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학생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돕고 진로에 관한 실천적인 계획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화된 직업교육이 시행되어야겠다 둘째, 학교 적응 및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은 학교에 적응 및 만족하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만족도가 높게 유지되도록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겠다 셋째, 졸업 후 진로계획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은 졸업 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모든 하위 요인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주는 정적인 영향과 상관관계 설명력 모두 높은 통계값을 기록하였다 이 결과는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이유민 2014, 오세진 2016)와 일치한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3. 제언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회복탄력성 향상을 이끌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이황은 2009, 남궁혜정 2012), 인문학 프로그램(이영면, 2013)등이 청소년의 사회성과 긍정성을 발달시켜 자아정체감 형성과 회복탄력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예술 및 인문학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주체적인 행동을 하며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만족도는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어떤 점에 잘 적응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학교 환경에 반영한다면 학생들의 긍정적인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수지, 이정자(2013).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활심리학회, 20(1)**. 119-136.
- 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고양:위즈덤하우스
- 남궁혜정(2012).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진로의식성숙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 대도시학교와 대안학교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마예림(2016). 중고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사회적지지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문새롬(2016).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상태에 미치는 영향 :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박선희(2013).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성동제(2015). 위기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과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손은령(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양형모(2016). 청소년의 개인 특성 및 가정 특성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여지영(2015).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오세진(2016). 마이스티고 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윤지영(2016).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및 회복탄력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영면(2013). 인문학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유민(2014).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은정(2012).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 긍정정서와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황은(2009). 또래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기술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현미(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의

- 사소통 유형을 매개변인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임나영(2015).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상태 유형 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정은주(2017). **청소년 회복탄력성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초당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미간행.
- 조명실, 최경숙(2007). 진로상담 :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황금진(2017). **특성화고 학생의 정서지능, 취업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Hackett, G. & Lent, F. W.(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347 - 382.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 1067 - 1079.
- Wagnild, G. M. & Young, H. M (1993).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Review*, 7, 418 - 428.

## &lt;Abstract&gt;

## The Effect of Resili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among Specialized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Najeong Park\*, Nhayoung Lim\*\*, Chang-Hoon Lee\*\*\*

This study examined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among specialized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with the aim of proposing preliminary data to suggest ways to improve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through establishing proper resilience.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s; first, to define the resilience status in relation to the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among students; second, to describe the status of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related to the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among students; and last, to examine the influence of resilience on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among specialized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To accomplish such research objectives, the assessment survey was developed after reviewing the theoretical literature on specialized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background, ego identity, and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The survey was comprised of 54 items including personal characteristics (3 items), resilience (27 items), and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24 items). A total of 990 students from industrial specialized high schools across the country completed the survey, and the responses from 775 student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es after excluding the surveys with unanswered items or untrustworthy responses.

Results were as follows: The group with higher levels of school adaptation and satisfaction showed higher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than those with lower levels of school adaptation and satisfaction. Furthermore, for the influence of resilience on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the results showed that resilience had positive associations with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all correlations and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showed a robust statistical significance.

Therefore, to enhance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education that could help students better adapt to school, increase satisfaction with the school, and create positive resilience must precede.

**Key words : Resilience,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Specialized Technical High School**

---

\* Chungbuk Technical High School

\*\* Correspondence: Research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lask13@naver.com

\*\*\* Correspondence: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armony@cnu.ac.kr